

2023년 5월 14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부활 제 6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5 월]



복음화 지향 :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선포되고 전해진 말씀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슬픔에 잠긴 이들, 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8,5-8.14-17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화답송 시편 66(65),1-3ㄱ.4-5.6-7ㄱ.16과 20(◎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3,15-18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15-21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영성체송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영성체 후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당신 사랑의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이 세상은 영적 기쁨의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강수원 베드로 신부 ♣

성령

“보호자”로 옮긴 그리스 말 ‘파라클레토스’는 요한계 문헌의 고유한 낱말로, ‘곁에 있도록(보호나 변호를 위하여) 부름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요한의 서간에서는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1 요한 2,1 참조), 요한 복음서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일컫습니다(14,16,26; 15,26; 16,7 참조). 곧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한 분이신 우리의 보호자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이제 아버지께 가시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다른 보호자”는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어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그분을 잃은 “고아”가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늘 희망을 품고 선하게 살라고 권고합니다(제 2 독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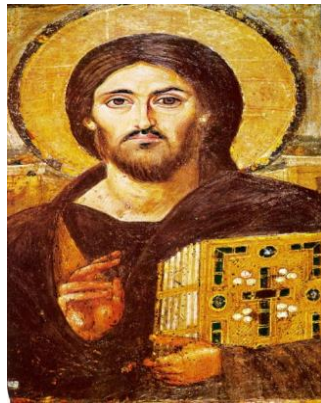
오늘 복음의 시작과 끝에서 ‘주님 사랑’과 ‘계명 준수’의 상호적 인과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키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1 독서는 신앙과 동떨어져 이방인처럼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의 복음과 계명을 받아들였을 때 넘치는 기쁨을 누렸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기쁨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에만 더 집착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행동하는 이라야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매 순간 만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 14,15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Jn 14,15



| 부활 제 6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령
한구절



‘성부 하느님과 성령’
폼페오 바토니 작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요한 14,21).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성모 성월 - 성모님께 대한 궁금증 몇가지

□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부모님은 누구인가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뫼르」와 「암」의 복합어로 뫼르는 이집트어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암은 히브리어로 「야훼」의 축소형이므로 마리아는 「야훼의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 성모님이 자주 발현하시는 이유

성모 발현이란 성모 마리아가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초월한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성모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와 호소, 간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친이자 교회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슬퍼하고 회개하며 끊임없이 보속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성모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에는 [성모송](#), [성모찬송](#), [삼종기도](#), [묵주기도](#), [성모호칭기도](#) 등이 있습니다. 성모송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축하인사와 엘리사벳의 인사가 합쳐진 것으로 6 세기부터 전해지다가 13 세기부터 대중화됐습니다. 삼종기도는 하루에 세 번,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에게 알려준 예수의 잉태와 강생의 신비를 기념하기 위해 바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성모신심기도는 묵주기도입니다. 1917 년 파티마 성모는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매일 묵주기도 15 단을 바쳐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파티마의 메세지] <https://cbck.or.kr/Board/K5160/401375?page=39>

[성모성월 특집] (2) 성모님께 대한 궁금증 몇가지 전문 - <https://tinyurl.com/2fxa8cw6>



[이미지 클릭]
성모 성월 기도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프란치스코 교황님 "5 월은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묵주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당부한 파티마 성모님"을 떠올리는 한편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5 월 성모성월이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시간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최근 헝가리 사도 순방을 언급한 교황님은 "폴란드와 헝가리가 마리아를 자신들의 모후로 선포"한 것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강조하시면서, 신앙의 인내와 일치, 조화로운 협력을 구하고 특히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청하셨습니다.

[전문]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3-05/papa-maggio-mese-preghiera-rosario-pace-fine-guerra.html>

초등부 세례교육 및 첫영성체 교리반 모집 2023 년 어머니의 날 행사 @ Shaw Wines

□ 대상: Year 3 ~ 6 재학 초등학생

□ 기간: 2023 년 6 월 ~ 8 월,

□ 시간: 매 주일 오후 13:15 ~ 14:30

□ 신청비(교재비): \$30

□ 문의: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문의 : 주정자 루치아

어머니의 날 맞이 와이너리 방문 행사(5 월 12 일(금)) 준비와 마침을 위해 봉사해 주신 분들과 행사에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활 제 6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8

단열처리로 냉난방 절약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32

세탁횟수 주1회 줄이기(모아서 세탁하기)
 → 0.21kg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3강 오경 입문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안소근 수녀의 구약 중주 |
 구약의 전체적인 구성을 훑어봅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36강]
 흡수저 출신 영웅의 몰락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판관기 4부 | 10-12 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하느님께서 창조하신걸까?
 다윈의 진화론이 맞는걸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김도현 바오로 신부 |
 가톨릭 둘레 특강#3

□ 미사 참례자수

| | | | |
|--------|-------------|-------|-------------|
| 4월 30일 | 성인 47 아이 17 | 5월 7일 | 성인 52 아이 20 |
|--------|-------------|-------|-------------|

□ 우리들의 정성 (5월 6일(토)~ 12일(금))

| | | | | | | | |
|-----|-----|-----|-----|------|-------------------------------|-----|-----|
| 권묘순 | 김요한 | 김천주 | 김태룡 | 남궁영근 | 서진원 | 안영규 | 양홍석 |
| 이지영 | 장호훈 | 전인철 | 주정자 | 황병욱 | 교무금 \$665 (13 가정) / 봉헌금 \$340 | |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 | |
|------|-------------------|---------------------------|
| | 5월 14일, 부활 제 6 주일 | 5월 21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
| 독서 |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허준 안토니오, 이민정 글라라 |
| 예물봉헌 | 루카반 | 마르코반 |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14일) 루카반 → (21일) 마르코반 → (28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21일) 요한반 → (6월 7일) 루카반
- ※ 매월 첫째주 식사나눔시 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 | | | | |
|--------|-----------------------------------|-----------------------------------|----------------------------------|----------------------------------|
| | 입 당 | 예 물 | 영 성 체 | 파 건 |
| 5월 14일 | 77 주 천주의 권능과 |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151 주여 임하소서 | 141 죽음을 이긴 |
| 5월 21일 | 140 주의 승천 찬미하네 |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182 신묘하온 이 영적 | 137 부활하신 주 예수 |